신청 기간도, 강의도 고를 수 없는 융합전공생

>> 1면에서 계속

경영학과는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 요건 차이 등을 고려해, 본 수강 신청 때는 제1전공생의 수강 신청만 허용한다. '기술창 업'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정모 씨는 교육과 정표에 있는 '창업가의마인드셋'과 '기술혁신관리'를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창업가의마인드셋'은 교수가 수강 인원을 늘려 들을 수 있었지만 '기술혁신관리'는 끝내 수강할 수 없었다. 정모 씨는 "학과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교수님께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 부탁하지만, 인기 강좌는 교수님께서 증원에 부담을 느껴 허락받기 쉽지 않

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벤처' 융합전공에 진입한 김모 씨는 제1전공 강의의 학과 제한으로 인해 이수 포기를 고민 중이다. 그는 "경영학 과목은 학과 제한이 걸려 있어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며 "경영학을 배울 수없다면 심화전공을 선택할 생각"이라고 밝혀다

융합전공 참여학과 행정실은 제1전공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디자인조형학부 행정실 측은 "디자인조형학부 수업은 대부분 실습 위주인데, 제1전공생도 실습실이 부족해 전공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융합전공생 수가 제1전

공생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면 오히려 제1전공생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행정실 측도 "경영학과가 참여하는 융합전공만 8개"라며 "학과 제한은 제1전공생 수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두 학과 행정실 모두 졸업 요건 등 타당한 이유로 학생이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일 경우에는 재량껏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대학 행정실은 "해당 강의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한 상황 등에 놓여있다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고

수강권 보장 뾰족한 수 없어

제1전공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이 아예 불가했던 경우도 있다. '다문화한국어교육'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사범대 20학 번인 안모 씨는 융합전공 교육과정표를 보고 '아동발달' 강의를 수강하려 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담당 교수가 제1전공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씨는 "융합전공생이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교수진 논의 결과 제1전공생의 수강만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벤처' 융합전공을 주관하는 정보대학 행정실 측은 "학과마다 학생 수, 교과목 운영 계획 등 사정이 다르기에 참여 학과에 융합전공생도 본 수강 신청 때 신청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 여 "경영대는 제1전공생도 많고 참여 융합 전공도 8개나 되기 때문에 융합전공생과 제 1전공생을 동일하게 취급해달라 요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술창업' 융합전공은 크림슨창업지원 단에서 본 수강 신청이 불가한 융합전공생 들의 수강 희망 과목을 조사해 신청을 돕 는다.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개설학과 행 정실에 전달하면, 해당 행정실에서 담당 교수에게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러한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돕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기술창업' 융합전공생 정모 씨는 "해당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돼도 3주 차 이 후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불편을 토 로했다

수강 가능 인원을 늘려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 학사팀은 "매 학기 시작 전, 이중 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 수를 고려해 수강 인원 등 수업 운영 사항을 결정 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한다"며 "대학에서 도 이를 고려해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수의 수업 운영 권한은 침해할 수 없다. 경영 대학 행정실은 "수강 희망자가 많아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해도 교수가 수업 운영 방식, 수업의 질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이를 지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실, 교수자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분반 증설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과의 모든 교수가 함께 운영하는 제1전 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과 달리 융합전공 은 참여학과마다 교수 1, 2명만이 관여한다. 해당 학과의 수강 신청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융합전공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 전공은 대부분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비로 지원하기에, 융합전공자 수강권을 보장해달라고요구할 근거도 없다. 융합전공 관계자 A교수는 "융합전공은 전공 운영을 위한 조교와 학생수에 비례한 약간의 교과과정 운영비만을 2020년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그마저도 융합전공 학수번호로 개설되는강의 운영에 사용하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융합전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A교수는 "안정 적인 융합전공 운영을 위해선 금전적·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 **| 전수현·조경준**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김채연** 미디어부장 icetea@

22학년도 2학기 개설강의 기준

<융합전공생이 수강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정정 기간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한 강의
 - 융합보안·인문학과문화산업·인문학과정의 등에 포함된 미디어학부 전공 강의 13개 모두
 - 인문학과문화산업·패션디자인및머천다이징 등에 포함된 디자인조형학부 전공 강의 4개 →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정 기간 부터 신청 가능한 강의

금융공학·기술창업·소프트웨어벤처 등에 포함된 경영학과 전공 강의 25개 모두

3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 있지만 수강이 불가한 강의

경영전략 (소프트웨어벤처·EML), 아동발달 (다문화한국어교육)



기초디자인-3D, 뉴미디어아트 디자인사고, 2D 기초조형

"필요성 느끼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불가"



정문에서 보이는 4층 테라스에는 폐기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 1면에서 계속

연습 공간 부족한 세종 학생회관

많은 동아리가 연습을 위해 학생회관을 찾지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하루에 3~4팀만 고전음 악감상실과 4층 진달래관에서 연습할 수 있 다. 진달래관은 문이 닫히지 않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다. 음향 장비도 오래돼 음질이 깨 대관하지 못한 동아리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짐이 쌓여있는 학생회관 복도에서 연 습한다. 총학생회실 뒤 계단으로 향하는 복 도는 폐가구, 폐집기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안선미 고대농악대장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는 많지만연습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개방된 테라스는 노후화로 인해 방치된 상태다. 4층 통로 뒤 테라스에 있는 나무 책 상은 오랜 시간 비를 맞아 썩었다. 정문에 서 보이는 3, 4층 테라스에는 폐기자재 나 무판자와 쓰레기들이 놓여있다. 장민서(글 로벌대 융합경영22) 씨는 "학생회관 테라 스가 개방된 건 알지만 낡아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외벽과 내벽은 낙서 로 가득하다. 이예진(공정대 경제통계학부 22) 씨는 "미관을 해치니 모두 지웠으면 한 다"고 전했다.

세종총학생회는 2019년부터 지속해서학교 측에 학생회관 리모델링과 전기용량증설을 요구했다. 시설팀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다. 기획예산팀 측은 "기금 마련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글|최민서 기자 frog@ 사진|김태윤 기자 orgnmind@

홍일식 전 총장 자서전 〈오직 고려대학교〉 출간

본교에서의 기억과 애정을 담다

고려대학교

홍일식(국문학과 55학번) 전 총장의 자전 적 이야기를 담은 〈오직 고려대학교〉가 지난 1일 발간됐다. 유년 시절부터 1994년 제13대 본교 총장 재임 당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 진 본교와의 인연이 책 곳곳에 드러난다. 자 서전을 발간한 본교 출판문화원(원장=김상 용 교수)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인문학자 총장이라 할 홍일식 전 총장의 생애와 사상 과 혜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첫머리에서는 홍일식 전 총장이 일생에 영향을 미친 스승들과 그 일화를 소개했 다. 그는 "고려대학교와의 숙명적 인연은 인촌 김성수 선생으로부터 시작됐다(62

쪽)"고 회고했다.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홍 전 총장에게 인촌 선생은 "기일 때마다 하루를 추모의 마음으로 보낼(62쪽)" 정도로 뜻깊은 인물이다. 그는 '인촌의 새교명 지키기 작전'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본교에 대한 인촌 선생의 애정과 노력을 소개하며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이어 홍 전 총장은 국

문학과 재학 당시 만난 구자균, 김춘동, 조 지훈, 최남선 선생과 총장 재임 시절 사표 로 삼은 유진오, 김상협 전 총장들과의 이 야기와 함께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다. 특 히 그는 군 복무 당시 구자균 선생에게 받 은 답신을 떠올리며 "되돌려받은 편지를 계기로 '겸손'과 '신중'을 되새겼다(126 쪽)"고 말했다.

홍일식 전 총장은 본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연구소에 몸담고 있을 당시 의 분투와 성과를 자평했다. 1968년 민족문화 연구소의 총간사를 맡으며 판매 부진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던 연구소를 위해 우여곡절 끝 에 예산을 마련했다. 그는 "초대 소장이셨던 조지훈 선생께서 유언으로 민족문화연구소 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164쪽)"며 연 구소운영에사력을다한이유를밝혔다.또한조지훈 선생이 마무리 짓지 못한〈한국도서해제〉를 출간하고지훈국학연구조성비를세우며선생의 뜻을이었다.연구소장을 맡으며〈한국문화사대계〉,〈한국현대문화사대계〉,〈중한사전〉등 여러 서적도 편찬했다.홍 전총장은 발간된 많은 책 중〈중한사전〉을 첫손에 꼽았다. 재정과 이념 문제를 극복하고 발간한 18만여단어의〈중한사전〉은〈중한대사전〉,〈현대중한사전〉과함께 많은이의 주목을 받았다.이외에도 그가 출판한〈한국문화사대계〉 등은 세계적으로 보급돼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계기가됐다.

홍 전 총장은 1994년 제13대 총장 취임과 함께 자신의 이 상을 담아 '바른교육·큰 사람 만들기' 교육선언을 발표했 다. 그는 과거 본교가 추구해 왔던 '야성적 기질'과 '사색하 는 고대', '지성과 야성'의 조 화를 이룩하고자 했다. 홍 전 총장은 "민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정체를 회복하고 지 키겠다는 철학을 담았다(332

쪽)"고 전했다.

총장 퇴임 후 문화영토연구원에서 '문화영토론'의 기반을 마련하며 다국적 문화 교류를 대비했다. 오랜 고민과 모색 끝에 홍 전총장은 "영토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닌,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안주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06쪽)"는 생각을 정립했다.

홍일식 전 총장은 책의 끝자락에서 본교가 '대학'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대학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나아가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속에 우리의 '문화영토'를 넓혀갈 수 있다(442쪽)"고 힘주어 말했다.

글 l 김영은 기자 kimoo@ 사진제공 l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삭제되기 전에 메일 이전하세요

하이웍스·네이버웍스로 포털에서 메일 생성 가능

오늘(26일)부터 본교 이메일 시스템이 변 경된다.

교직원은 가이아 하이웍스 메일을, 학생은 네이버웍스 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이메일 계정은 본교 포털(KUPID) 메일메뉴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모바일 메일 전용 앱을 통해서도 새로운 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이메일 시스템 전환은 구글의 정책 변경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기존 office 365(@korea,edu), webmail,korea, ac,kr(@korea,ac,kr) 계정으로 수신되 던 메일은 새로운 이메일 계정에서 별도 의 조치 없이 수신할 수 있다. 올드 메일과 webmail 계정은 12월 1일에 사라진다. 최종 삭제 일자까지 이전하지 못한 메일도 영구 삭제된다.

구글 협업 도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정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은 office 365와 네이버웍스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는 현 구글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유 지되다

드라이브에 저장된 기존 슬라이드, 구글 문서 등은 'Take-out' 툴을 사용해 ppt, 엑 셀, 워드로 저장할 수 있다. 'Take-out' 툴 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로 'google 계정 설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처는 "오랫동안 홍보를 해왔지만 많은 불편이 우 려된다"며 "최종 삭제 일자까지 안내에 따라달라"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dzlight@